

보도 설명자료

(21. 10. 7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탄소중립위가 산업부의 검토의견을 빼고,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

(10.7일자 조선일보 「진실 감춘 탄소중립위 해명」 보도에 대한 설명)

※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공동배포

1. 기사내용

- 탄소중립위의 “에너지 저장방식은 ESS 외에도 양수발전과 그린 수소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”라는 해명은 이미 탄소중립위 에너지분과 전문위 의견 검토 결과에서 **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**
 - 산업부도 양수발전 확대 가능성에 대해 “다른 발전 방식에 비해 신규 발전소 건설에 **한계가 있다**”며 **반대**
- 탄소중립위는 이미 사업성이 없다고 검토된 내용을 다시 내세우면서 이 같은 검토 결과는 **빼고 발표하지 않음**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- 산업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검토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에너지저장장치의 적정 필요량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해 탄소중립위에 검토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며,
 - 에너지저장장치 규모는 전력수요, 계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, 장단기 에너지저장장치 수준, 섹터커플링*, 플러스 DR**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항임

* ①전력을 가스로 전환하는 P2G(Power to Gas), ②열로 전환하는 P2H(Power to Heat), ③전기차를 이동하는 ESS로 활용하는 V2G(Vehicle to Grid) 기술

** 잉여전력 발생 시간에 전력 소비 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

- 특히 양수발전은 에너지저장장치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며 수몰 지역 발생, 장기간의 공사 기간 등 적정 입지선정과 공사에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,

- 양수발전의 확대를 반대한 바 없으며, 현재도 4.7GW 용량의 7개 양수발전소가 운영 중이며, 추가로 1.8GW 신규 양수발전소 3개 건설을 추진 중임

- 탄소중립위는 에너지분과 전문위와 산업부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ESS 외에도 다양한 에너지 저장방식이 있다는 취지에서 9.28일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이며,

- 이미 사업성이 없다고 판명된 검토 결과를 빼고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

※ 문의: <산업통상자원부>

강감찬 전력산업정책과장(044-203-3880) / 이주노 사무관(3881)

<국무조정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>

양정화 에너지혁신과장(02-6744-0551) / 정석철 서기관(0552)